

# 아는 만큼 보인다!

##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카타르 월드컵



FIFA WORLD CUP  
Qatar 2022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평소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월드컵 기간만 되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외친다. 그런데 월드컵을 더욱 재밌게 즐기려면 월드컵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평소 축구를 잘 모르는 학우들을 위해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으로 재직 중인 윤영길 교수와 축구 전문 언론 ‘포포투 코리아’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김환 동문(사회체육 16)의 도움을 받아 카타르 월드컵의 관련 포인트를 짚어주고자 한다.

한지용 기자 football1229@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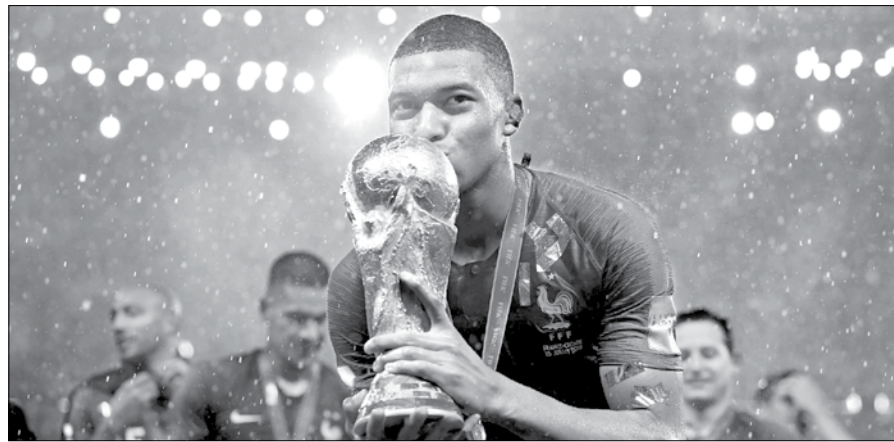
### 축구인들의 축제, 월드컵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 FIFA(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세계축구선수권대회다. 대륙별 예선을 통과한 32개의 국가가 참가하며, 4년에 한 번씩 대회가 진행된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출발한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라 불릴 만큼 명실상부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월드컵의 대회 방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본선에 진출한 32개 국가는 4팀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실시한다. 승리 시 3점, 무승부 시 1점, 패배 시 0점이 부여되며 조별리그 모든 경기를 치른 후 승점이 높은

상위 2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토너먼트는 단판 승부로 각 조의 1위 팀과 2위 팀이 붙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A조 1위 팀은 B조 2위 팀과 C조 1위 팀은 D조 2위 팀과 경기를 갖게 된다. 토너먼트에서는 반드시 한 팀이 탈락해야 한다. 만약 전후반 90분이 모두 지나도 스코어가 같다면 추가로 30분의 연장전을 진행한다. 여기서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페널티킥으로 운명의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그렇게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토너먼트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팀이 영광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된다.

### 월드컵, 우승의 열쇠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가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출처 : Telegraph

윤영길 교수는 이번 월드컵의 핵심 키워드 ‘속도’로 꼽았다. 윤 교수는 “축구가 전술적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빠른 속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공격 전개 시 빠른 속도로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팀이 우승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개인기와 같은 기술적 역량보다 팀 단위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찾아왔다. 이번 월드컵은 속도를 잘 살리는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프랑스를 꼽았다. 놀라운 스피드를 보유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망)’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선수진이 가장 강력하

다고 본 것이다.

반면, 김환 기자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잘하는 팀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월드컵 직전 무리한 일정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지 않는 국가가 가장 월드컵 우승에 유리할 것으로 본 것이다. 우승 후보로 꼽아달라는 질문에 김환 기자는 “약점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고 부상 선수가 적은 브라질”이라고 답했다. 통산 5회 우승으로 월드컵 최다 우승팀의 주인공인 브라질은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망)’를 앞세워 여섯 번째 우승을 노린다.

### 색다른 변수, 늦가을 월드컵

일반적으로 월드컵은 세계 축구의 중심인 유럽 대륙 리그의 시즌 종료 이후 잠깐의 휴식기를 가진 후 6월 초중순(6월 10일 전후)에 시작하는 것이 관례다. 월드컵 92년 역사 동안 모든 대회는 여름에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중동 아시아의 무더운 기후 탓에 6월이 아닌 11월 말에 대회가 진행된다. 이에 따른 변수가 늘어나고 있다. 먼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 리그는 본래 8월 중순 시작하여 5월 중순에 종료된다. 그런데 시즌 도중 월드컵이 펼쳐지기 때문에 대회 기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월드컵 이전 일정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에 김환 기자는 “선수들이 3, 4일에 한 번꼴로 경기를 치르고 있어 부상에 더욱 자주 노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수많은 선수가 부상 때문에 월드컵 출전의 꿈을 접어야 했다. 유럽 축구 감독들은 이러한 무리한 일정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다시는 월드컵이 시즌 도중 펼쳐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영길 교수는 “시즌 중에 펼쳐지는 월드컵이 팬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대회가 될 수 있다”며 색다른 시각을 제공했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부분의 선수는 수준이 높은 유럽 리그에서 활약한다. 관례처럼 6월 중순에 월드컵이 개막하면 5월 중순에 시즌이 끝난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다시 회복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늦가을에 월드컵이 개막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윤 교수는 “원래 월드컵은 8강이 가장 재밌고 경기력이 좋다. 하지만, 유럽 리그 시즌이 시작하고 컨디션이 올라오는 11월 말에 대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조별리그 때부터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스타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팬들은 더 재밌고 수준 높은 축구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이 한국 대표팀에는 약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의 선수들이 대부분 유럽 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유럽파가 부족한 우리에게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루과이  
11월 24일 22:00

- 주목해야 할 선수 : 페데리코 발베르데, 루이스 수아레스
- 강점 :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거듭난 발베르데를 중심으로한 강력한 중원
- 약점 : 수아레스, 카바니 등의 노쇠화와 들쭉날쭉한 공격진의 기량



가나  
11월 28일 22:00

- 주목해야 할 선수 : 토마스 파티, 이냐키 윌리엄스
- 강점 : 빠른 스피드와 우월한 신체조건
- 약점 : 월드컵 직전 귀환선수 합류로 인한 조직력 저하



포르투갈  
12월 3일 00:00

- 주목해야 할 선수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주앙 칸셀루
- 강점 : 모든 포지션이 유럽 주요팀에서 활약하는 톱클래스 선수로 구성
- 약점 : 호날두의 기량 저하 및 감독의 소극적인 전술

###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

한국 축구대표팀(이하 ‘대표팀’)은 1998년 전까지 단 한 번도 월드컵 무대에서 1승을 거두지 못한 축구 변방국이었다. 그러나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시작으로 박지성과 손흥민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배출하면서 아시아 대표 축구 강국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2002년 이후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제외한 월드컵에서 모두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몇몇 축구 팬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의 전력이 원정 최초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2010년보다 뛰어나다며 16강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환 기자는 “공격의 손흥민(토트넘 핫스퍼)과 수비의 김민재(나폴리 SSC)라는 두 톱클래스 선수 덕분에 공수는 2010년보다 강할지 몰라도, 이를 연결해줄 미드필더 자원은 2010년보다는 못하다”고 평가했다. 2010년 당시 미드필더진의 박지성, 기성용 등이 있었지만, 현재 대표팀에는 그들만큼 뛰어난 기량을 가진 미드필더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영길 교수 역시 2010년 박지성처럼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가 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박지성은 주장으로서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기댈 수 있는 팀의 심리적 지지점 역할을 했다”고 말



지난 9월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KFA

하며 16강 진출 당시 박지성의 존재감을 평가했다. 현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의 리더십은 포지션 특성 상 경기장에서 박지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미드필더들이 김민재와 손흥민을 연결해줄 수 있다면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인 전력은 분명 열세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월드컵 클래스 선수들로 가득하며 가나 역시 유럽 스타들의 귀화를 통해 전력

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표팀도 2010년 이후 가장 좋은 전력임은 분명하다.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감독 교체 없이 4년 동안 온전히 팀을 만들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환 기자는 “파울로 벤투 감독 부임 이후 4년간 차근차근 노력했고, 아시아 최종예선 무대에서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으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16강 진출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 주목해야 할 스타는? 대체불가 ‘에이스(ACE)’ 손흥민과 도전장 내민 김민재

손흥민은 지난 시즌 세계 최고의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월드컵 개막을 3주 앞둔 상황에서 안와골절(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가 외상으로 인해 부러지는 질환) 부상으로 쓰러지며 월드컵 불참 위기에 놓였다. 강남 아이앤지 성형외과 최재혁 원장은 “안와골절은 수술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 4주, 심하지 않은 경우 3주에 시간이 지나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코로나 시국에 국민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제가 월드컵에서 쓸 안면 보호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환 기자는 “객관적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변수를 창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손흥민의 부재는 정말 큰 손실”이라며 손흥민이 대체 불가능한 선수임을 강조했다. 그의 빠른 캐우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김민재(좌)와 손흥민(우). 두 선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이다. 출처 : KFA

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의 컨디션이 최고조라는 것이다. 김민재는 올해 여름, 유럽 빅리그 중 하나인 이탈리아 세리에A 무대에 입성함과 동시에 ‘9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등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윤영길 교수는 “카타르

월드컵은 대표팀의 중심축이 손흥민에서 김민재로 바뀌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윤 교수는 “김민재가 과연 세계 무대에서 어디까지 통할지 기대된다”고 말하며 김민재의 대활약을 예고했다. 에이스 손흥민의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민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 기자생각

초등학교 때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보며 거리에 나가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목 놓아 외쳤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다만, 올해는 이태원 참사 여파로 거리응원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 참치, 이태원 참사 등 약재가 이어지며 국가 분위가 가라앉아 있다.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극전사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어 국민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이가 학우 여러분을 포함한 국민들 역시 저 먼 중동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극전사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아낌없이 전해주면 좋겠다. 마음껏 축제를 즐기기에 어려운 분위기지만 월드컵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축구를 통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웃음꽃이 피길 기대해본다.